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Stamnos, ca. 480-470 BC. 대영박물관)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해서  
 목마게척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했다. 숯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병사들이 담담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돛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암초)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모습이다. 스타모노스는 암포라와 크라테르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항아리였다.



트로이 멸망 때 아버지 앙키세스를 들쳐 멘  
 아이네아스가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잡고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하는 모습(나폴리).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기원의  
 바다유랑 끝에 수호신들이 약속한  
 새 땅 로마에 이르러 건국의  
 기초를 쌓는다<아이네이스>.  
 \*\*\*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여호수아,  
 긴 세대  
 가장의  
 든직한  
 모습.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그리스 우표, 1983)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하여  
 목마게척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했다. 숯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었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병사들이 담담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돛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모습이다.



오디세우스(윌리시스)와 세이렌들(1909년, 헤버트 제임스 트레이퍼)  
 그리스 시인들은 선악과나무(창세기)를 취하고 있던 뱀을 영생을 주는  
 선악과를 지키는 용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리스신화에서 아레스의 숲의 금양  
 모피를 지키는 자나 헤라의 정원의 황금사과를 지키는 자를 용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면에 르네상스시대에는 선악과나무에 상주한  
 뱀을 여인으로 형상화했다. 화가 헤버트 제임스 트레이퍼도 뱀사람들의  
 모습을 배에 앉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이렌(암초)들로 인어들로 형상화  
 했다. 오디세우스는 수호신들(아테나, 키르케)의 도움으로 이 유혹을 이기게  
 되었고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갈릴리 호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배는 교회요, 뱀사람들(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 일반서신 이야기 옛 것과 새 것의 식별

조동호 지음



[한 때 좋았던 것]

[더 좋은 것]



옛것은 새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월남이 나뉘거나 약한 것이 아니다. 당대에는 초교로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좋았을 뿐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하셨다”(히 7:18).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신 것이 폐할 것이다”(고전 13:10).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구약이 나뉘거나 약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초사상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신약이 나타날 때까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좋았을 뿐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하셨다”(히 7:18). “그 첫째서 것을 폐하시니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 10:9).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신 것이 폐할 것이다”(고전 13:10). “그(그리스도)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요한)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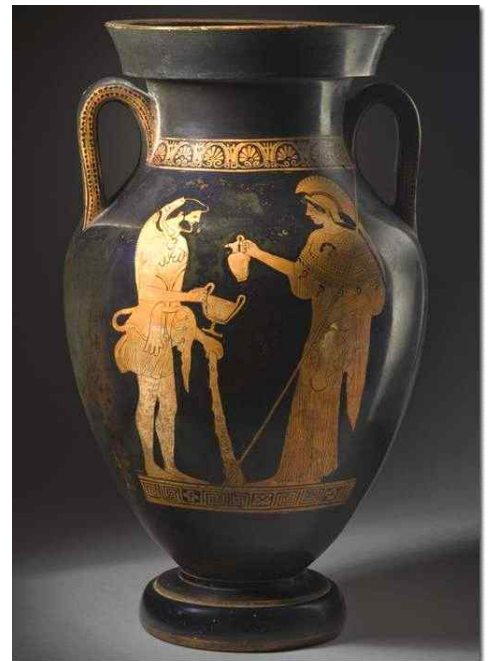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갈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사과에서 리물 라돈(뱀)을 무찌르고 잠취한 불꺽을 죽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와 비교), 왼손에 올리브 몽둥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뉘가지에 걸쳐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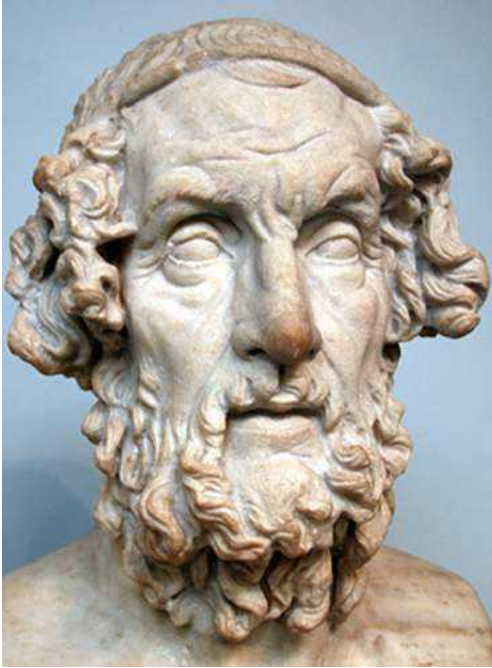
영웅 이야기, 동과 금양모피, 아테나와 지혜의 상징 물베메(kylix, 5BC) 금양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야손은 뱀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뱀은 이야손을 삼키지만 아테나 때문에 이야손을 게워내는 모습과 나무에 걸린 금양모피를 좌측에 그렸고, 오른쪽에 투구를 오른손에 찹을 왼손에 지혜의 상징인 물베메를 쥔 여신 아테나를 우측에 그렸다. 이야손의 수호신은 헤라이다. 헤라의 부탁으로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이야손을 중재 돕는다. 오비디우스는 “금양모피조차도 손에 넣는 수고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타고난 고난과 용감히 싸우는 헤라클레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양포라) 장면서는 하나님께 속성인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중세기시대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 지혜(Holy Wisdom)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지혜서 7:7, 9:17). 따라서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교적 영지주의 에비온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자들이었으므로 성령을 지혜로 인식하였고,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암시가 고린도서에 담겨있다(지혜서 10:18, 집회서 15:3, 6:31, 잠 18:4).

## 그리스신화의 창시자들

### 호메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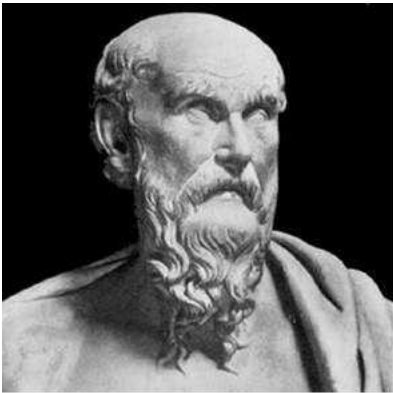
주전 8세기경  
그리스 서사 시인  
시각 장애인

저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그의 작품들은  
편집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구약(유대교)뿐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 근동신화(조로아스터교)  
등도 신약(그리스도교)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신약성경은 이전의  
좋았던 것들(달빛 계시)보다 탁월하게 더  
좋은 것들(햇빛 계시)에 대한  
설명(재해석).

### 헤시오도스 주전 8세기경 그리스 서사 시인



저서  
〈신들의 계보〉  
일명 〈신통기〉  
〈노동과 나날〉

실용적이고 종교적이며 교훈적인 시를 많이 씀.  
정의와 신의와 성실함의 미덕을 강조.

[명언들]

“고생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할 일이 없는 것이 진정한 수치이다.”  
“가난은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자의 길동무이다.”  
“작은 것을 더하고 계속해서 더한다면, 언젠가는 큰 업적을 이룰 것이다.”  
“일에는 놀람이 없다. 신은 언제나 땀 흘리는 자의 곁에 머문다.”

### 베르길리우스 (Publius Vergilius Maro, 70-19BC) 로마 시인



저서  
〈아이네이스〉,  
〈농경시〉, 〈목가〉

〈아이네이스〉는 로마전국  
이야기이자, 그리스로마신화를  
완성시킨 작품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의 안내자로  
등장할만큼 유명하다.